

우리나라 중학생의 흡연실태와 관련 요인 분석

장진영*

토평중학교

Analysis of Related Factors on Middle School Student Smoking in Korea

Jin Young Chang*

Topyeong middle school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are the secondary data of Global Youth Tobacco Survey(GYTS) developed by the WHO and United State Center for Disease Control(CDC) and Prevention to trace tobacco use among youth in youth in countries across the world.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erve for a basis for antismoking campaigns and to prevent adolescents from smoking by analyzing the smoking by analyzing the smoking realities factors.

Methods : This study is a cross-sectional school-based survey, which employed a two-stage cluster sample design to produce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middle school students aged 13 to 15 years olds. Seventy-five schools were selected. All schools containing grade 1, 2 and 3 that contained 40 or students were included in the sampling frame.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proportion of smoking students in middle school was 6.4% and the rate of smoking in male students(7.4%) was higher than it of in female students(5.5%).
2. 26.5% of all respondent had a experience to try smoke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ate of trying smoking in male students was increased by grade more than female students.
3. According to test of significance in regression analysis, the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sex, school grade, smoking parents, friends distinction, pocket money and others showed statistical significance.
4. There was a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smokers and nonsmokers in proportion to the completing the preventive education for nonsmoking($p=0.0023$) and the acquirement of knowledge on smoking($p<.0001$).
5. Finally there was a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he exposure to anti-smoking campaign($p=0.0053$) and tobacco advertisement in the mass media and the smoking($p=0.0036$).

Conclusion : All things considered, the health education for tobacco control in school need to be developed from an elementary school. I suggest that prevent smoking program in school need to be revitalized and be made more accessible for everyone who wish to quit. And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the regulation on total banning promoting cigarette advertising and smoking scene in the movie for young people.

Key words : a middle school student, Global Youth Tobacco Survey, smoking, related factors

(2006년 10월 31일 접수, 11월 20일 채택)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Korea Society of School Health.

* Corresponding author: Jin Young Chang, Topyeong middle school, 963 Topyeongdong Gurisy, Kyeonggido 471-060, Korea
Tel : 82-31-556-6195 Fax : 82-31-556-6196 E-mail : iamdoony@daum.net

1. 서 론

1. 연구 배경

세계보건기구(WHO, 1997)와 11차 세계 금연대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청소년의 흡연율은 세계 1위로 기록될 있을 만큼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의 흡연시작 연령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점점 낮아지고, 여학생의 흡연율이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이 더해진다. 한편 흡연이 주원인이 되는 인체질환에는 각종 호흡기 질환과 암, 관상동맥 질환, 임신에 따른 합병증과 소화성 궤양 등이 있으며, 아직 신체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청소년기의 흡연은 성인의 흡연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일순, 1992).

일반적으로 흡연을 처음 시작하여 불규칙적으로 흡연을 시도하는 주 연령층은 만 11세~15세로 알려져 있다(Alexander, 1983). 흡연자가 흡연을 처음 시작하여 규칙적인 흡연자가 되기까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Leventhal & Cleary, 1980; Flay, 1993), 청소년들이 첫 흡연경험 이후 규칙적인 흡연자가 되는 최초 2~3년 동안의 흡연예방 교육은 매우 중요한 개입기라고 보고되고 있다(이순영, 2002). 금연운동도 이미 규칙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지선하, 2000). 따라서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과 개도는 첫 흡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흡연자들의 양상과 실태에 대한 전반적 이해의 전제가 필수적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흡연율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밝히려는 많은 국내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이미 규칙적으로 흡연을 하고 있는 중독기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대상자 역시 특정 지역에 편중되거나 소규모적이어서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들의 흡연실태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점을 내포하

고 있다. 그나마 매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전국 중·고등학생 4,000여명(중학생 2,000여명)을 대상으로 흡연율과 흡연동기, 흡연량,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 등을 통해 흡연실태를 파악하고는 있지만, 그 결과를 우리나라 중학생 전체의 흡연실태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흡연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흡연자들이 처음으로 흡연을 시작하는 시기인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국적인 단위로 약 6,000여명의 중학생을 구분선정하여 우리나라 중학생의 전체 흡연실태와 흡연 관련요인을 가장 일반화하여 파악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 흡연실태와 함께 흡연 관련요인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는데, 중학생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들 중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담배회사의 담배광고이다(지선하, 2000). 대부분의 광고들은 인체에 대한 흡연의 기능적인 면보다는 매력적인 흡연 장면과 같이 다분히 상품성을 의식한 이미지 전달식 광고에만 치중하고 있어 이성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말초적 흡연욕구를 자극하고 있다(Burton, 1992). 한편 담배광고는 또래나 성인들의 흡연율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를 왜곡시키기도 하는데, 흡연율을 실제보다 과대 추정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담배광고를 접하고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Bovin 등, 1993). 예를 들어 외국의 경우 1968년 '버지니아 슬립'이란 담배광고가 방영된 뒤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1968년 8%에서 1974년 15%로 2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처럼 담배광고가 청소년들의 흡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국내에선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 연구에서는 담배광고를 포함한 대중매체에서의 흡연광고나 흡연 장면이 청소년의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는 2004년 연세대학교 국민건강증진연구소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질병관리본부(CDC)주관으로 세계 각국의 13~15세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청소년흡연조사(GYTS : Global Youth Tobacco Survey)자료를 토대로 활용하였음을 첨언하며, 본 연구를 통해 중국적

으로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흡연실태와 흡연 관련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프로그램 설계의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흡연실태와 흡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함에 있으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를 위해 선정된 중학생들의 흡연실태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일반적 흡연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성, 학년, 지역별 특성에 따른 흡연양상의 차이를 살펴본다.

셋째, 학교흡연예방교육 이수여부에 따른 흡연율을 조사하여 흡연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넷째, 대중매체속의 담배광고나 흡연 장면과 중학생들의 흡연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대중매체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3. 흡연자의 정의

흡연여부에 대한 정의는 “최근 30일 동안 몇 개비의 담배를 피웠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최근 30일 이내 “한 개비라도 담배를 피웠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흡연자로, “흡연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비흡연자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최근 30일 이전에 흡연한 자는 본 연구의 흡연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흡연율, 흡연양상, 흡연자들의 인구사회학적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흡연예방교육 이수여부, 흡연에 대한 지식과 태도, 대중매체의 금연메세지와 담배광고 접근율 등이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우리나라 소재 2,000여개(소재지역,

공·사립, 남·여 공학 여부, 야·주간, 학급수, 학생수 균분산정)의 중학교 명단을 받은 미국질병관리센터(CDC)에서 2단계 집락 표집을 하였다. 즉 1단계로 서울소재 25개교, 6개 광역시(광주, 부산, 울산, 인천, 대구, 대전)의 25개교, 7개의 지역(경기,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경남, 경북)의 25개교 총 75개 중학교를 학교크기에 비례하여 확률추출 하였고, 2단계로 선정된 중학교의 등록 자료를 바탕으로 컴퓨터를 통한 무작위 추출에 의해 학교별 학급을 선정하고 그 학급에 속한 학생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 응답률은 92%(75개교 중 69개교), 학생 응답률은 95.3%(6,234명 중 5,940명)로 총 5,940여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WHO에서 GYTS(Global Youth Tobacco Survey)를 위해 개발한 56개 문항에 연구자가 29개 문항을 추가하여 흡연 양상에 관한 13개 문항,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대한 18개 문항, 담배와 대중매체 관련 29개 문항,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이수여부 4개 문항, 간접흡연과 관련된 6개 문항, 금연에 대한 태도를 질문하는 6개 문항, 기타 9개 문항으로 총 8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표본 집단과 유사한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중학생 90여명에게 사전조사를 하였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이 연구의 자료수집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2004년 9월~11월에 실시되었다. 서울지역 25개교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는 안산일대학 대학생, 광주를 포함한 전라도 지역은 조선대 예방의학, 대구와 경북지역은 경북대 예방의학, 부산과 경남지역은 고신대 보건학과, 기타 지역은 연세대 보건학과에서 연구원을 모집하였으며 전체 연구원의 모집과 교육은 연세대 국민건강증진 연구소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훈련받은 연구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목적을 학생들에게 설명 후 개별 동의 하에 설문지를 배

부하고 자가보고 형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설문지를 즉석에서 회수하였다. 조사결과는 12월에 CDC로 전송하였으며 일차 분석 작업은 CDC와 WHO에서 이루어졌다.

5. 분석방법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은 SAS window version 8.1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지역별 흡연율에 대한 사례수(n)와 백분율(%)을 구하고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χ^2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흡연자의 흡연양상에 대해 성별, 학년별, 지역별로 사례수(n)와 백분율(%)을 구하고 χ^2 -test를 통해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대상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흡연여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이외의 흡연자와 비흡연자 집단간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흡연예방교육 이수여부, 대중매체에서의 흡연 장면에 대한 접근도 등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χ^2 -test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p-value는 양측검정으로 계산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중학생의 흡연실태

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 학년, 지역 등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무응답을 제외한 전체 5,615명이었으며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2,609명(46.5%)이고, 여학생이 3,006명(53.5%)으로 여학생이 조금 많았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2,106명(36.8%), 2학년이 1,764명(30.8%), 3학년이 1,864명(32.5%)로 1학년이 가장 많았다.

지역적 분포는 서울 거주자가 1,901명(32.0%), 광역시 거주자가 2,156명(36.3%), 그 외 시·도 거주자가 1,883명(31.7%)으로 광역시 거주자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수	범주	명	%
성	남	2,609	46.5
	여	3,006	53.5
학년	1학년	2,106	36.8
	2학년	1,764	30.8
	3학년	1,864	32.5
지역	서울	1,901	32.0
	광역시	2,156	36.3
	시·도	1,883	31.7
전체		5,615	100

* 무응답이 있으므로 변수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음.

나. 중학생 흡연율

대상자들의 흡연율은 성, 학년, 지역별로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최근 30일 동안 한 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웠다고 응답한 학생은 6.4%였으며, 남학생 흡연율은 7.4%, 여학생 흡연율은 5.5%로 남학생 흡연율이 여학생 흡연율 보다 조금 높았으며, 학년별 흡연율은 1학년이 3.9%, 2학년이 7.3%, 3학년이 9.4%로 학년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표 2> 중학생의 흡연율 단위 : 명(%)

변수	범주	전체	흡연	비흡연	χ^2 (p-value)
성	남	2,566	191(7.4)	2,375(92.6)	8.64 (0.0033)
	여	2,962	162(5.5)	2,800(94.5)	
학년	1학년	2,073	387(3.9)	1,992(96.1)	48.53 ($<.0001$)
	2학년	1,736	512(7.3)	1,610(92.7)	
	3학년	1,832	315(9.4)	1,659(90.6)	
지역	서울	1,872	149(8.0)	1,723(92.0)	6.93 (0.0313)
	광역시	2,110	125(5.9)	1,985(94.1)	
	시·도	1,842	138(7.5)	1,709(92.5)	
전체		5,528	353(6.4)	3,175(93.6)	

다. 흡연시도 유무

중학생들의 흡연시도 유무는 성, 학년, 지역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았다.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워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전체학생 중 26.5%의 학생이 “흡연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남학생의 흡연시도율이

29.4%로 여학생의 22.1%보다 높았다. 학년별 차이를 보면 1학년은 18.6%, 2학년은 29.5%, 3학년은 31.2%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을 시도해 보는 학생이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시·도 지역의 학생들의 흡연시도율은 30.1%로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 비하여 높았다.

라. 첫 흡연시도 연령

흡연시도 경험이 있는 1,549(26.5%)명 학생들의 첫 흡연시도 연령 결과는 <표 4>와 같다. 흡연시도 경험이 있는 중학생 중 33.7%의 학생이 13~14세에 20.3%의 학생이 15~16세에 즉 과반수이상의 학생이 13세~16세에 첫 흡연을 시도했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의 20.3%는 8세 이전에 흡연시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의 12.2%가 8세 이전에 첫 흡연을 시도했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에 비하여 남학생의 첫

흡연시도 연령이 낮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성별 간 첫 흡연시도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중학교 1학년의 연령이 14세임을 감안하여 13세 이전까지의 흡연시도율을 보면 1학년의 59.1%, 2학년의 47.7%, 3학년의 36.5%로 학년이 낮아질수록 첫 흡연시도 연령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p<.0001).

마. 간접흡연율

대상자들의 간접흡연 정도는 “최근 7일 중 며칠 동안 집 안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았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 대상자 중에 49.9%가 “집 안에서 간접흡연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3> 중학생의 흡연시도 유무

단위 : 명(%)

변수	범주	있 다	없 다	χ^2	p-value
성	남	757(29.4)	1,818(70.6)	39.19	<.0001
	여	655(22.1)	2,315(78.0)		
학 년	1학년	387(18.6)	1,690(81.4)	94.74	<.0001
	2학년	512(29.5)	1,226(70.5)		
	3학년	575(31.2)	1,271(68.9)		
지 역	서 울	480(25.6)	1,395(74.4)	19.71	<.0001
	광역시	522(24.1)	1,611(75.9)		
	시 도	559(30.1)	1,297(69.9)		
전 체		1,549(26.5)	4,303(73.5)		

<표 4> 중학생의 첫 흡연시도 연령

단위 : 명(%)

변수	범주	≤8세	9~10세	11~12세	13~14세	15~16세	χ^2 (p-value)
성	남	138(20.3)	92(13.5)	132(19.4)	182(26.8)	138(20.0)	42.39 (<.0001)
	여	70(12.2)	49(8.5)	98(17.0)	243(42.2)	116(20.1)	
학 년	1학년	88(26.0)	46(13.6)	66(19.5)	132(39.1)	6(1.8)	153.35 (<.0001)
	2학년	74(16.3)	52(11.5)	90(19.9)	161(35.5)	76(16.8)	
	3학년	55(10.6)	48(9.3)	86(16.6)	152(29.3)	178(34.3)	
지 역	서 울	49(11.7)	44(10.5)	75(17.9)	180(43.1)	70(16.8)	33.63 (<.0001)
	광역시	93(21.0)	50(11.3)	71(16.0)	134(30.3)	95(21.4)	
	시 도	86(16.6)	63(12.2)	104(20.1)	150(29.0)	115(22.2)	
합 계		228(16.5)	157(11.4)	250(18.1)	464(33.7)	280(20.3)	

마. 간접흡연율

대상자들의 간접흡연 정도는 “최근 7일 중 며칠 동안 집 안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았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 대상자 중에 49.9%가 “집 안에서 간접흡연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7일 중 며칠 동안, 당신은 집이 아닌 곳에서 주위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았나요?”라는 질문은 통해서 집 밖에서의 간접흡연율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학생 중 34.4%가 “간접흡연 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65.7%가 “간접흡연 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2. 흡연자의 흡연양상

가. 흡연 동기

연구대상자 중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흡연 동

기는 “호기심”이 56.8%로 가장 많았고 “친구 따라서”가 18.4%,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가 7.7%, “담배 맛이 좋아서”가 6.2%, “멋있어 보여서”가 2.7% 순으로 흡연자의 과반수이상인 “호기심”으로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경우 “친구 따라서” 흡연한다고 응답한 율이 높았으며, 학년이 증가할수록 “호기심”보다는 “친구 따라서” 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흡연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성, 학년, 지역별 집단간 흡연동기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나. 흡연량과 흡연일수

흡연학생의 흡연량은 현재 흡연학생 중 31.7%가 “하루에 2~5개비”를 피운다고 하였고 30%는 “1개비 미만”을 피운다고 응답한 반면 “하루 20개비 이상” 피우는 학생도 2.5%나 되었다. 남학생 흡연자 중

<표 5> 집 안에서 간접흡연율

단위 : 명(%)

변수	내용	없다	1~2일	3~4일	5~6일	7일
성	남	1606(62.0)	419(16.2)	243(9.4)	111(4.3)	213(8.2)
	여	1781(59.4)	493(16.5)	275(9.2)	147(4.9)	301(10.0)
학년	1학년	1237(59.1)	367(17.5)	189(9.0)	106(5.1)	196(9.4)
	2학년	1090(62.0)	261(14.8)	178(10.1)	74(4.2)	156(8.9)
	3학년	1116(60.3)	303(16.4)	167(9.0)	86(4.6)	180(9.7)
지역	서울	1139(60.3)	305(16.1)	176(9.3)	77(4.1)	193(10.2)
	광역시	1269(59.8)	354(16.7)	198(9.3)	107(5.0)	195(9.2)
	시도	1129(60.2)	309(16.5)	183(9.8)	91(4.9)	163(8.7)
합계		3537(60.1)	968(16.4)	557(9.5)	275(4.7)	551(9.4)

<표 6> 집 밖에서 간접흡연율

단위 : 명(%)

변수	내용	없다	1~2일	3~4일	5~6일	7일
성	남	988(38.2)	947(36.6)	358(13.8)	120(4.6)	177(6.8)
	여	917(30.7)	1128(37.7)	522(17.5)	198(6.6)	227(7.6)
학년	1학년	775(37.1)	760(36.4)	333(15.9)	106(5.1)	116(5.6)
	2학년	587(33.4)	658(37.5)	265(15.1)	107(6.1)	140(8.0)
	3학년	590(31.8)	686(37.0)	306(16.5)	113(6.1)	158(8.5)
지역	서울	586(31.1)	636(33.7)	34(18.2)	134(7.1)	187(9.9)
	광역시	737(34.8)	817(38.6)	316(14.9)	122(5.8)	127(6.0)
	시도	693(37.1)	709(37.9)	273(14.6)	78(4.2)	116(6.2)
합계		2016(34.3)	2162(36.8)	933(15.9)	334(5.7)	430(7.3)

33%가 “하루에 2~5개비”를 여학생의 32.1%는 “1개비 미만”을 피운다고 응답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흡연량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학년별 흡연량의 차이를 보면 1학년 흡연학생의 50.6%, 2학년의 38.1%가 하루 흡연량이 1개비 미만인데 반하여, 3학년의 41.0%가 하루 흡연량이 2~5개비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흡연율과 함께 흡연량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01$).

중학생 흡연자의 흡연일의 분포는 현재 흡연하고 있는 학생 중 최근 30일 동안 흡연 일을 질문한 결과 34.4%가 1~2일이라고 응답하였고 15.9%는 3~5일, 15.9%는 30일 내내, 14.4%는 20~29일, 9.4%는 10~19일이었다.

흡연학생의 학년별 흡연일수 차이를 살펴보면 1학년과 2학년은 1~2일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3학년은 30일 내내가 27.5%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량과 함께 흡연일도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학년별 흡연일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1$).

다. 담배의 구입경로와 접근도

현재 흡연학생 중 31.0%가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 가판대에서 “직접 구입”을 한다고 하였고, 21.0%는 “타인에게 빌렸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9.2%는 “타인에게 돈을 주고 사오게 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7.7%는 “누군가 줬다”라고 응답하였다. 학년별 담배 구입경로의 차이를 보면 1, 2, 3학년 모두 “가게에서 직접 구입”이 가장 많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직접 가게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담배구입 시 나이로 인하여 담배를 구입하지 못한 적이 있는가?”는 질문에 최근 한 달 이내에 담배를 구입하려 했던 384명의 학생 중 71.6%는 “나이 때문에 담배를 사지 못했다” 28.4%는 “나이 때문에 담배를 사지 못한 적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라. 흡연학생의 금연의사

현재 흡연학생 중 64.0%는 금연을 희망을 하고 실제 70.8%는 “지난 1년 동안 금연을 시도했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 흡연자의 71.3%와 여학생 흡연자의 76.0%가 “지난 1년 안에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다”라

고 응답하여 여학생의 금연 시도율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반면 금연 희망률은 남학생 흡연자의 66.9%, 여학생 흡연자의 63.7%가 “금연을 희망 한다”고 응답하여 금연시도율과 달리 금연 희망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그 비율이 더 높았다. 학년이 증가할수록 흡연학생들의 금연 희망률과 지난 1년간 금연 시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서울지역의 흡연자들의 71.0%가 금연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금연 희망률이 가장 높았고 광역시 지역의 흡연학생 중 74.1%가 “지난 1년 동안 금연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금연 시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연시도 이유는 43.7%가 “나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9.1%가 “가족이나 친구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3.6%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라고 응답하였다.

3. 흡연 관련요인 분석

흡연에 관한 관련요인 분석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흡연예방교육 이수여부, 대중매체 접근정도에서 흡연군과 비흡연군 간의 차이를 χ^2 -test 또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흡연여부

흡연여부를 종속변수로 성, 학년, 거주지역, 부모흡연여부, 친구흡연여부, 용돈수준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다른 변수들(학년, 지역, 부모흡연여부, 친구흡연여부, 용돈수준)을 통제했을 때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흡연할 확률이 0.7배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특히 3학년은 1학년보다 흡연 확률이 1.5배 증가하였다.

부모의 흡연과 흡연여부와와의 관련성을 보면 부모가 모두 흡연하지 않는 군에 비해 부모가 모두 흡연하는 학생의 경우 흡연할 확률이 2.8배 더 높았고, 아버지만 흡연한 군은 1.3배, 어머니만 흡연하는 군은 1.1배 높았다.

친구가 모두 흡연하는 군은 흡연하지 않는 군에 비해 흡연 할 확률이 101.5배 높았으며, 일부분 흡연하는 경우는 14.5배였다.

또한, 용돈수준과 흡연여부와와의 관련성을 보면 용돈이 많을수록 흡연을 할 확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

었고 특히 용돈이 “5~10만원”인 경우 “1만원 미만”인 집단에 비해 흡연할 확률이 2.8배 높았다.

결론적으로 중학생의 흡연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성, 학년, 부모의 흡연, 친구의 흡연, 용돈 수준이었다.

나. 흡연예방교육 이수 정도와 흡연여부

흡연군과 비흡연군의 흡연예방교육 이수 정도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수업 중 흡연과 건강에 대해 마지막으로 토의 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라는 질문에 토의학습 경험유무에 따른 흡연율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1년 이내에 토의학습을 받은 경우보다 1년 이후에 받은 경우 흡연율이 증가함을 통해 토의 학습 기간에 따른 흡연군과 비흡연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014). “지난 1년 동안 치아의 갈색 변색, 주름 생성, 약

<표 7>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흡연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단위 : 명(%)

변수	범주	흡연군	비흡연군	OR	신뢰구간
성	남	191(7.4)	2,375(92.6)	1.0	
	여	162(5.5)	2,800(94.5)	0.7	0.6~0.9
학년	1학년	81(3.0)	1,992(96.1)	1.0	
	2학년	126(7.3)	1,610(92.7)	1.3	1.0~1.89
	3학년	173(9.4)	1,659(90.6)	1.5	1.1~2.1
지역	서울	149(8.0)	1,723(92.0)	1.0	
	광역시	125(5.9)	1,985(94.1)	0.8	0.6~1.1
	시도	138(7.5)	1,709(92.5)	0.9	0.7~1.3
부모	흡연 안 함	132(5.3)	2,377(94.7)	1.0	
	아버지 흡연	226(7.5)	2,799(92.5)	1.3	1.0~1.6
흡연	어머니 흡연	7(12.7)	48(87.3)	1.1	0.3~3.4
	부모 흡연	32(21.1)	20(78.9)	2.8	1.6~4.8
친구	아무도 없다	31(1.0)	3,197(99.0)	1.0	
	일부분 흡연	320(13.1)	2,124(86.9)	14.5	9.4~22.4
흡연	모두 흡연	53(53.0)	47(47.0)	101.5	58.7~188.3
	용돈	1만원 미만	73(4.3)	1,613(95.7)	1.0
수준	1~3만원	139(5.7)	2,300(94.3)	1.2	0.8~1.6
	3~5만원	98(8.4)	1,075(91.6)	1.4	1.0~2.1
	5~10만원	65(17.0)	318(83.0)	2.8	1.9~4.3
	10만원 초과	25(21.7)	90(78.3)	2.8	1.5~5.3

<표 8> 흡연예방교육 이수 정도와 흡연여부 단위 : 명(%)

질문	문항	흡연군	비흡연군	x ²	p-value
토의학습 여부	없다	101(9.0)	1018(91.0)	13.10	0.0014
	1년 이내	195(5.9)	3111(94.1)		
	1년 이후	86(7.0)	1151(93.0)		
흡연의 영향 교육이수	있다	143(5.6)	2,410(94.4)	12.13	0.0023
	없다	147(8.3)	1,626(91.7)		
	모르겠다	87(1.9)	1,222(98.1)		

취 등과 같은 흡연의 영향에 대해 수업 중 배워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흡연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흡연율이 증가하였으며 흡연유무와 흡연 예방교육 이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23).

마. 대중매체 접근정도와 흡연여부와의 관련성

1) 대중매체에서 금연메세지 접근정도와 흡연여부와의 관련성

대중매체에서 금연메세지의 접근정도에 따른 흡연여부와의 관계는 <표 9>와 같다. “최근 한 달 동안 대중매체에서 얼마나 많은 금연메세지를 보거나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에 흡연군의 6.4%가 “본적 있다” 9.4%가 “본적 없다”라고 응답한 반면 비흡연군의 93.6%가 “본적 있다”, 90.6%가 “본적 없다”라고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53).

“스포츠 행사나 박람회, 콘서트, 공동체 행사 또는 각종 모임에서 얼마나 자주 금연메세지를 보았습니까?”라는 질문에 흡연군의 7.2%, 비흡연군의 92.8%가 “본적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대중매체나 사

회행사에서 금연메세지와 학생들의 흡연여부에는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대중매체에서 담배광고와 흡연여부와의 관련성
대중매체에서 담배광고 접근 정도와 흡연여부와의 관계는 <표 10>과 같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얼마나 많은 담배광고와 선전용 문구를 보았습니까?”라는 질문에 흡연군의 7.5%가 “본적이 있다”, 5.8%가 “본적 없다”라고 응답하여 비흡연군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15).

“지난 한달 동안 TV에서 스포츠 행사 또는 다른 프로그램 시청 시 얼마나 담배브랜드의 이름을 보았습니까?”라는 문항에 흡연군의 7.5%가 “본적 있다”, 5.8%는 “본적 없다”라고 응답하였다(p=0.0005). 신문, 잡지, 각종 사회행사에서의 담배광고와 중학생들의 흡연여부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흡연관련요인 다변수 분석

흡연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1>과 같다. 종속변

<표 9> 대중매체에서 금연메세지 접근정도와 흡연여부와의 관련성 단위 : 명(%)

질문	문항	흡연군	비흡연군	χ^2	p-value
대중매체에서 금연 메세지	본적 있다	322(6.4)	4,677(93.6)	8.07	0.0053
	본적 없다	67(9.4)	647(90.6)		
각종 사회 행사에서	본적 있다	309(7.2)	3,956(92.8)	1.23	0.0036
	본적 없다	49(8.0)	562(92.0)		
금연 메세지	가본적 없다	38(4.3)	844(95.7)		

<표 10> 대중매체에서 담배광고 접근정도와 흡연여부와의 관련성 단위 : 명(%)

질문	문항	흡연군	비흡연군	χ^2	p-value
신문이나 잡지에서 담배광고	본적 있다	213(7.5)	2,636(92.5)	6.39	0.0115
	본적 없다	160(5.8)	2,616(94.2)		
각종 사회 행사에서	본적 있다	186(8.0)	2,129(92.0)	9.37	0.0092
	본적 없다	121(6.4)	1,784(93.6)		
TV에서 담배브랜드	본적 있다	83(5.6)	1,395(94.4)	15.20	0.0005
	본적 없다	250(7.5)	3,102(92.5)		
	TV보지 못했다	113(5.1)	2,104(94.9)		
		25(10.6)	210(89.4)		

수는 흡연여부이고 성, 학년, 지역, 부모흡연, 친구흡연, 용돈수준, 흡연영향 교육이수여부, 대중매체에서 금연 메시지, 각종 사회행사에서 금연메세지, 신문이나 잡지에서 담배광고, 각종사회 행사에서 담배광고, TV에서 담배브랜드의 접근정도를 통제변수로 하였다.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흡연예방교육을 이수한

높았고 대중매체에서 금연 메세지를 본적이 없는 군은 본적이 있는 군에 비하여 흡연할 확률은 2.3배 높았다. 이밖에 신문이나 잡지에서 담배광고를 본 군과 TV에서 담배브랜드를 본 군은 보지 않은 군에 비하여 흡연할 확률이 1.1배 높았다.

〈표 11〉 흡연관련요인에 대한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 수	범 주	OR	신뢰구간
성	남	1.0	
	여	0.5	0.5~0.9
학 년	1학년	1.0	
	2학년	1.2	0.8~1.8
	3학년	1.3	0.9~2.0
지 역	서 울	1.0	
	광역시	0.9	0.6~1.3
	시 도	1.0	0.7~1.4
부 모 흡 연	흡연 안 함	1.0	
	아버지만 흡연	1.2	0.9~1.7
	어머니만 흡연	1.1	0.2~5.3
	두 분 흡연	2.1	1.0~4.5
친 흡 연	아무도 없다	1.0	
	일부분 흡연	17.5	9.4~32.7
	모두 흡연	150.0	61.1~368.2
용 돈 수 준	1만원 이하	1.0	
	1~3만원	1.1	0.7~1.8
	3~5만원	1.5	0.9~2.4
	5~10만원	2.6	1.5~4.5
	10만원 이상	2.6	1.1~6.2
흡연영향 교육이수	있다	1.0	
	없다	1.3	0.9~1.8
대중매체에서 금연 메세지	본적 있다	1.0	
	본적 없다	2.3	1.5~3.6
각종 사회 행사 에서 금연메세지	본적 있다	1.0	
	본적 없다	1.1	0.7~1.8
신문·잡지에서 담배 광고	본적 없다	1.0	
	본적 있다	1.1	0.8~1.6
사회행사에서 담배광고	본적 없다	1.0	
	본적 있다	1.1	0.7~1.6
TV에서 담배 브랜드	본적 없다	1.0	
	본적 있다	1.1	0.8~1.6

군은 이수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흡연할 확률이 1.3배

IV. 고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 흡연율 조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는 “현재 흡연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흡연자를 파악하는 반면 이 연구에서는 WHO에서 정한 기준인 “최근 30일 이내 몇 개비의 담배를 피웠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흡연자를 파악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의 흡연율과 함께 집 안과 밖에서의 간접흡연율도 함께 조사하였다.

흡연자의 흡연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는 흡연량과 금연의사, 흡연행태에 대해 조사를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흡연시작시기, 흡연동기, 흡연장소, 흡연량과 흡연일, 흡연기간, 담배구입경로와 접근도, 금연에 대한 태도 등 흡연자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교육 계획 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일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흡연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강희숙, 1996), 중학생의 흡연실태와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훈모, 1997), 청소년 흡연행위의 결정요인(이상균, 2002) 연구 등에서는 부모의 흡연, 친구의 흡연, 학교생활, 용돈 수준 등의 인구 사회학적인 흡연 관련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들은 대중매체나 컴퓨터통신을 통해 문화가 형성되며 이러한 문화가 청소년의 흡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와 흡연과의 관련성 중심으로 흡연 관련요인을 분석하였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이 연구의 전체 중학생 흡연율은 6.4%, 남학생의 흡연율이 7.4%, 여학생의 흡연율이 5.5%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남학생 흡연율 2.4%, 여학생 흡연율 1.7%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흡연자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른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흡연율뿐만 아니라 지역별 흡연율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흡연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남학생일수록, 학년이 증가할수록 흡연율이 증가하는 것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흡연시도율과 첫 흡연시도 연령에서 성, 학년,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서울과 광역시 소재 학생보다는 시·도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흡연시도율이 높게 나타났고 첫 흡연시도 연령 또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국표본 조사에 의한(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성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학생들의 흡연시작 연령이 점차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첫 흡연을 시도한 이들이 규칙적으로 흡연을 하기까지는 약 2~3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Leventhal 등; 1988) 이들이 규칙적인 흡연자로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중학교 이전부터 특정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흡연예방교육이 이루어져 함을 시사한다.

전체 학생 중 49.9%가 최근 일주일 이내 1일 이상 “집 안에서 간접흡연을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67.3%의 학생은 “집 밖에서 간접흡연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집 밖에서 간접흡연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였는데, 이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흡연이 허용된 장소의 출입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집 밖에서 간접흡연율은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있었는데 시·도지역, 광역시, 서울지역 순으로 간접흡연율이 높았으며 이는 서울지역일수록 학생들이 출입하는 PC방, 노래방, 공원, 콘서트 등의 공공장소가 더 흔하고 그 곳에서의 흡연이 허용됨에 기인한 결과라 추정된다. 특히 PC방은 청소년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청소년들이 흡연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PC방의 흡연허용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흡연량에 대해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조사 항목이 “5개비 이하”, “6~10개비”, “11~15개비”, “16~20개비”, “20개비 이상”으로 나누어 조사한 반면이 연구에서는 “1개비 미만”, “1개비”, “2~5개비”로 세분화하여 이들의 흡연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33%가 “2~5개비”, 여학생의 경우 32.1%가 “1개비 미만”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흡연량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흡연량과 함께 흡연일도 분석하였는데, 흡연량과 흡연일이 남자일수록, 학년이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30일 내내” 흡연하는 학생이 15.9%, 하루 흡연량이 “10개비 이

상"인 학생이 7.3%로 조사되어 중학생 흡연의 심각성과 아울러 흡연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이 병행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담배구입경로를 살펴본 결과 대상자 중 31.0%가 "직접 가게에서 구입"하였고 2.1%는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한다고 응답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청소년보호법상 「19세 미만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담배자판기를 설치」 하고 담배를 판매하도록 되어있지만 이 연구에서 2.1%의 대상자가 "담배자판기를 통해"담배를 구입한다고 응답 하였다. 또한 흡연학생 중 담배 구입 시 28.4% 만이 "나이 때문에 담배를 사지 못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 하여 국민건강증진법상의 19세 미만 자에 대한 담배 판매 금지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상자들의 담배 접근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금지과 담배판매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정부의 시책 역시 실효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금연 희망 의사의 경우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 연구 조사결과 남학생 73.3%, 여학생 88.0%가 금연을 희망하는 것으로 측정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 66.9%, 여학생 63.7%로 더 낮게 측정되었다. 또한 학년이 증가할수록 "지난 1년 안에 금연 시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들의 금연 시도이유가 "건강에 이로울 것 같아서"인 점을 감안할 때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이나 대중매체를 통한 금연 메시지를 접하게 됨으로써 이들의 금연 시도율도 증가하는 듯하다. 그러므로 흡연의 해악에 대한 보건교육 내용이 강화되어야 하며 흡연자들이 금연할 수 있는 금연교육프로그램이 흡연예방교육과 함께 운영 되어 져야 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흡연과의 관련성 분석에서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2004), 김수진 외 5인(1998), 강희숙 외(1996), 강영아 (2002)의 기존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로 남학생일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울지역에 거주할수록, 부모가 흡연할수록, 친구가 흡연할수록, 용돈이 많을수록 흡연율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Hill 등(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흡연하는 경우 부모가 흡연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상습흡연자가 될 확률이 2배 높다고 한 결과와 동일하게 부모의 흡연 특히 아버지 흡연이 대상자의 흡연유무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학생의 흡연예방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흡연예방프로그램을 구축 시에 이는 고려되어야 한다.

흡연예방교육 이수정도와 흡연과의 관련성에서는 흡연의 영향에 대해 교육 이수여부와 토의학습 여부에 따른 흡연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흡연예방교육이 토의학습을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연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공익광고를 통한 금연 캠페인이 흡연예방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서미경(2000)의 연구와 동일하게 흡연여부와 대중매체나 각종 사회 행사에서 금연 메시지 접근 정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중매체를 이용한 금연 및 흡연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구축하고 진행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텔레비전을 활용한 금연캠페인은 단시간에 많은 사람을 접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높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저하된다(김택민, 1993). 그러므로 대중매체를 활용한 흡연예방 및 금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청소년층의 인구학적, 심리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세분화된 광고 메시지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때 보건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이를 위한 체계화된 연구사업 전개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담배광고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본 연구 대상자의 56.5%가 텔레비전에서 담배브랜드를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담배광고가 간접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동경기에서 담배광고 선전판이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이거나, 드라마 상에서 담배이름이 선명한 담배갑이 보이는 등 TV에서는 금지된 담배광고가 간접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며(서미경, 2000) 이는 대상자들의 흡연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텔레비전을 통한 간접적인 담배광고를 강력히 제지해야 하며 공영방송 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 신문, 잡지 등에서 담배광고 금지도 차츰 확대해 나가야 한다.

대중매체의 흡연장면에 대한 반응과 흡연여부와 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TV에서 배우의 흡연장면에 대

한 흡연군과 비흡연군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흡연군은 비흡연군에 비해 흡연하는 배우에 대하여 “더 매력적”으로 느끼거나, 혹은 “피워보고 싶다”라고 응답한율이 높았으며, 흡연장면을 본 후 실제 흡연을 시도해 본 대상자들도 있었다. TV 뿐만 아니라 비디오, 영화, 만화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TV프로그램과 영화, 만화에서 흡연장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대상자의 선정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군집 확률표본에 의하여 14~16세의 남·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학생을 대표하므로 우리나라 중학생에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면적인 자료를 이용한 연구이므로 원인-결과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표집 한 자료를 이용하여 흡연 관련요인을 살펴볼 때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다. 즉 첫째, 흡연자 수준에 관한 측정시 이전의 연구에서 현재 흡연군, 흡연 경험군, 비흡연군으로 분류한 것과는 달리 이 연구는 흡연 경험군을 제외하고 최근 한 달 동안 흡연을 한 경험이 있는 현재흡연자를 흡연군으로 분류하여 흡연군 중 기억에 의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이 연구 자료는 군집 표본추출에 의한 확률표본자료이므로 단순 무작위표본 추출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흡연실태 파악과 흡연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WHO에서 실시한 세계 청소년흡연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의 75개 중학교 학생 총 5,9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중학생의 전체 흡연율은 6.4%인데 남학생 흡연율이 7.4%, 여학생 흡연율이 5.5%로 여학생 흡연율보다 남학생 흡연율이 더 높음을 볼 수 있었다. 학년에 따라서도 흡연율의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흡연율이 증가하였다.

둘째, 전체학생 중 26.5%의 학생이 흡연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 시도율이 증가하였으며, 시·도지역 거주학생의 흡연 시도율이 30.1%로 전체학생의 시도율(26.5%) 보다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셋째, 중학생 흡연자들의 흡연실태를 보면 흡연자의 56.8%가 호기심으로 흡연을 시작하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량과 함께 흡연일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흡연학생의 64%가 금연을 희망하고 70.8%의 학생이 지난 1년 안에 금연을 시도했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흡연여부와 관련된 요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 학년, 부모의 흡연, 친구의 흡연, 용돈 수준 등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친구의 흡연이 가장 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OR = 101.53).

다섯째, 흡연예방교육 이수여부에 따른 흡연군과 비흡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023)가 있었다.

여섯째, 대중매체(p=0.0053)나 각종 사회 행사(p=0.0036)에서 금연메세지와 흡연여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또한 신문, 잡지, 각종 행사, 인터넷을 통한 담배광고와 흡연여부 사이에도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첫 흡연시도 연령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흡연예방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실시되어야 하며 중학교에서부터는 흡연자에 대해서 예방교육과 금연교육이 병행 운영되어 흡연학생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흡연 예방프로그램의 내용은 흡연과 건강에 대한 지식을 기본으로 하여 대중매체에서 담배광고나 흡연 장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흡연의 첫 단계인 시도기에 있는 학생들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화된 흡연 예방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지속적·연계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

셋째, 공영방송을 통한 담배 간접광고 뿐만 아니라 케이블 방송과 신문, 잡지, 청소년 대상 각종 사회행사에서도 담배광고 금지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대중매체에서 연예인의 흡연 장면이 중학생 흡연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화에서는 흡연 장면을 금지해야 할 것이며 차후에는 청소년 대상 영화에서 흡연 장면 상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경아, 장주동 (2003). 일부지역 청소년들의 흡연실태. 아동간호학회지, 9(1), 66-72
- 강윤주, 서성제 (1995). 초등학생들의 흡연예방교육 개입효과에 관한 연구-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변화를 중심으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8(1), 133-142.
- 강희숙, 최명진, 이진현 (1996). 일부 중학생들의 흡연 실태와 그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3(2), 54-68.
- 김수진, 김미자, 이혜경 등 (1998). 일 도시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실태, 정신간호학회지, 7(2), 363-383.
- 김일순 (1992). 청소년 흡연의 심각성과 그 대책, 교육월보 130: 81-83.
- 김택민 (1993). 고교생들에 금연교육 효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경, 고연화, 문선순 (2002). 청소년 흡연행위 영향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2): 376-386.
- 서미경 (2000). 공익광고를 통한 금연교육 효과 분석,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17(2): 37-56.
- 이상균 (2001). 청소년 흡연행위의 결정요인, 사회복지리뷰, 6(1): 15-27.
- 원호택, 이민규 (1998). 서울대생의 스트레스 실태조사. 서울대 학생연구, 24(1): 81-91.
- 지선하 (2000). 흡연의 현황과 그 역학적 특성.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4). 2004 중·고등학생 흡연율.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2000). 담배와 건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성인흡연율 조사.
- Alexander, E. (1998). Children abuse. Community Outlook, 11(9), 327-331.
- Coombs, R. H., Fawzy, F. I., & Gerber, B. E. (1986). Patterns of cigarette, alcohol and other drug use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longitudinal study, Int J Addict, 21(8), 897-913.
- Connel, P. H. (1974). Addiction in adolescence some comments about It's diagnosis, tretment, and vulnerable groups, Community Health 6.
- Flay, B. R., & Burton, D. (1993). Correlates of exclusive or combined use of cigarettes and smokeless tobacco among male adolescents, Addict Behav, 18(6), 623-634.
- Hill, K. G., Hawkina, J. D., Catalano, R.F. et al (2005). Family influences on the risk of daily smoking initiation, J Adoles Health, 37(3), 202-210.
- Levental, H., & Cleary, P. D. (1980). The smoking problem : a review of the research and theory in behavioral risk modification, Psychol Bull, 88(2), 310-405.
- Sargent, J. D., Beach, M. L., Dalton, M. A. et al (2004). Effect of parental R-rated movie restriction on adolescent smoking initiation: a prospective study, Pediatrics, 114(1), 149-156.
- Sussman, S., Burton, D., Flay, B. R. et al (1993). Project toward no tobacco use : implementation, process and post-test knowledge evaluation, Health Educ Res, 8(1), 109-123.